

Sexuality 문화 계간지 -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주는 잡지

BUDZY

종간에 부처

6년동안 함께 한 친구
버디, 새로운 길을 찾다

24 호 종간호
8,000원

특집

퀴어 시네마,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커버 스토리 - 서동진

결혼식을 꿈꾸는 커플을 위한 조언
최고의 남자 친구가 되어 돌아온 홍석천

인터뷰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의 저자 다니엘 헬미니악
호주제 폐지 운동의 선두 남성 유재언
일본 첫 트랜스젠더 의원 가미카와 아야

20 커버스토리 서동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침묵에서 벗어나기?

- 2 화보 | EuroPride 2003
- 6 캠페인 | 찹질방 갈 때 무얼 챙길까?
- 8 중간에 부쳐
- 10 권두사 | 버디와 함께 한 6년의 시간들...
- 12 해외뉴스
- 16 국내뉴스
- 28 함께 살기 |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는 진리
- 32 감염인수기 | 이반 그리고 에이즈
- 64 띠별로 보는 이반 운세
- 66 동성애자 가족 만들기 4탄 | 결혼식을 꿈꾸는 커플을 위한 조언
- 75 동성애자인권지지 일만명 서명 운동
- 76 청소년 | 내 생의 아주 특별한 학교
- 80 그때를 아십니까 | 빛동인 - 광주 153 전
화사서함 모임의 역사
- 102 마아가 만난 세계의 액티비스트
제일동포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강유미
- 106 칼럼 | 올드보이, 올드게이
- 114 독자특별기고 |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 117 정기구독자님들께
- 118 발행인이 드리는 감사의 편지
- 120 편집후기

책속의 책 - 플래툰

동성애자의 혼인의 자유



특집

퀴어시네마,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 40 1999-2003 퀴어/영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 45 퀴어시네마의 정치적 노선; 바바라해머식
레즈비언 인공호흡
- 50 당신과 다를 바 없는 <퀴어마을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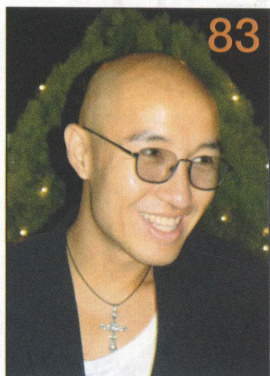
queer as folk



- 57 퀴어들의 욕망을 허하라
- 60 퀴어영화 A to Z 키워드로 살펴보는
퀴어-영화-문화

문화 88 ~ 98

MUSIC 마돈나, 펫 숍 보이즈, 데드 오아 어라이브 **BOOK**
How Proust Can Change Your Life: Not a Novel, 글로벌 섹
스, 니진스키 영혼의 절규 **MOVIE** 슈슈, 사랑의 양식
VIDEO 앤드게임, 시트콤 **CARTOON** 갈채, 러버스 키스



83 퀴어스타
최고의 남자친구가
되어 돌아온 그,
홍석천

99 게이팝
댄스그룹 2wo Third3

34 인터뷰
대낮 공원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가 유재언씨와
나눈 아주아주 솔직한 인터뷰



70 또 다른 성을 꿈꾸는 사람들
일본의 트랜스젠더
구의원 가미카와 아야

111
아, 눈물나는 레즈비언 사극
대장금



121 특별부록 I
2002~2003: 동성애자 인권운동 2년간의 연대기

127 특별부록 II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의 저자 인터뷰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해선 안됩니다.”

편집위원 한채윤 duribe@dreamwiz.com
김현구 ddolove@netian.com
이주란 oasisuk@chollian.net

편집팀 정민 comingout@kebi.com
윤미경 master@buddy79.com

편집디자인 사우나

특약필진 마야, 민화, 박광서, 송신상훈, 이승현,
이혜진, 이후소, 전동범, jack

표지사진 김준수

표지모델 서동진

교정/교열 정민, 지니

일러스트 콘

발행인 한채윤

발행처 도서출판 해울

출판등록번호 제 2-2668호

발행 2003년 12월 24일

창간 1998년 2월 20일

과월호 문의

전화 0505-938-7979

이메일 buddy79@buddy79.com

우편주소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776

BUDDY의 사전적 의미는 단짝 친구, 형제, 동료입니다. 동성애가 가지는 특별한 친밀감과 평등한 사랑관계를 이루어 가는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BUDDY는 지금까지 언론등의 여타 대중매체에서 다뤄진 동성애라는 것은 일회성 이슈나 호기심, 엿보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주지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갖가지 문화적 요구와 정보, 지식들을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진단체내에서 이성애자들의 흥미거리가 아닌 진실한 동성애 문화의 진면목을 제 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BUDDY는 동시에 이성애자들을 위한 잡지이기도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도 불구하고 과거의 고정된 패러다임에 묶여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여기는 오류가 이 사회에 여전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의식의 오류를 타파하고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판단을 위해 정확하고 편견없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버디〉에 실린 글과 사진은 본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 〈버디〉에 실린 글은 〈버디〉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글쓴이의 견해를 나타낸 것입니다.